

안 ‘홀로서기’ 대권구도 급변 야권 단일화 등 첩첩산중

시간 끌며 캐스팅보트 역할 가능성 김동연과 함께 여권과 손잡을 수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홀로서기’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대권 구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안 대표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가 결렬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합당 형태로는 정권교체에 필요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자신의 대권 행보에 미칠 손익을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안 대표의 결정으로 대선판이 일단 3자 구도로 재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전히 중도층에서 확실력을 갖춘 안 대표가 지지세를 결집해 가면 여야, 특히 정권교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야권에는 대형 약재가 될 수도 있다.

안 대표로서는 국민의힘에 합류해 경선에 참여해서는 당장 승산이 없는 상황을 염려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 자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야권 내에서도 4, 5위를 오가는 지지율로는 쉽사리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올라타기가 쉽지 않았던 셈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내 지지 기반이 전무하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의 회견에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독자 출마의 길을 강하게 시사했다. 안 대표는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한 기후위기, 과학기술 혁명 등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패, 독선과 내로남불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로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선거 1년 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 안 대표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면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번째 도전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 승패와 무관하게 합당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한 데 따른 비난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 중도층 영향력 여전…김동연 등과 손잡고 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합당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됐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하며 ‘합당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팅보트 될 가능성=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도는 2%에서 5% 사이를 오가는 수준이다. 당장은 큰 비중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전히 부동층이 적지 않은 가운데 중도 성향의 표심이 제3의 대안으로 안 대표에게 향할 경우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찍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 대표는 2017년 대선에서 21.4%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안 대표의 지지층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유권자라는 점에서 그의 ‘마이웨이’는 여야간 일대일 대선구도가 절실한 국민의힘에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안 대표가 제3세대에서 대선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손을 잡는 등의 형태로 세력을 키우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

다. 안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만나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고 해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 때문에 안 대표는 시간을 끌며 캐스팅보트로서의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해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설 확률이 높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김 전 부총리와 함께 전략적으로 여권의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1997년 대선 당시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지분의 일부를 보장받고 ‘오월동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국민 기대 저버려”

“일방적 결정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하자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협

상 과정에서 최대한 국민의당 입장을 존중해왔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과도한 지분 요구, 심지어 당명 변경과 같은 무리한 요구가 나왔으나 모두 양보하고 양해하는 자세로 임했다”며 “하나의 요구를 수용할 때마다 더 큰 요구들이 추가됐던 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쪽이 통합에 더 절실했는지, 어느 쪽이 한 줌의 기득권을 더 고수했는지는 협상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서울시장 재보선 때 정치적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어버린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재보선 당시 안 대표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권 교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앞으로의 행보에는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 “친일청산” 야 “정권교체”

대권주자들 8·15 메시지

여야 대권주자들은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저마다 8·15 메시지를 발신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대체로 일본의 사죄와 친일 청산 등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본 정부는 하루속히 부끄러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통해 역사 발전과 화해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친일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광복 직후 친일 청산의 기회를 놓쳤다”고 ‘과거 청산’을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잔재가 친일 언론, 친일 특권 세력으로 남아 여전히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다”며 “올바른 개혁과 정의의 세우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언·정·경 카르텔은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마지막 잔재”라며 “다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무장하자”고 밝혔다. 광복회와 간담회를 한 박용진 의원은 역사 왜곡 처벌법 추진 의지를 다지며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문제나 보상에 소홀한 부분은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온 것은 문재인 정부 보존 노력의 결실”이라며 애국지사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뒀다. 김두관 의원은 “광복은 아직도 미완”이라며 “평화, 번영, 공존으로 광복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정권교체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적은 방명록에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으로 되찾은 국권 위에 세워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SNS에서 1998년 김대중(DJ)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총리 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상기, “양국 정치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의지의 문제”라고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개탄하며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더는 추락하지 않도록 (하겠 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다음 세대가 부모보다 못하게 될 거라는 암울한 위기가 국민들을 감싸게 됐다”고 비난하며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지지 호남지역 15개 단체 오늘 공동성명 발표

호남지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지지 활동을 하고 있는 15개 단체가 1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다.

공정사회연구원과 감동포럼 등 윤 후보를 지지하는 호남지역 15개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공식 지지를 선언한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윤 후보가 호남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축하고,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중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함께하는 범야권을 묶어 ‘정권교체’라는 대의적 명분을 실현해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 많은 호남인들은 그동안 시대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호남에서 이제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며, 정권교체를 위한 새롭고도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윤석열캠프 송기석 광주전남 총괄, 공정사회연구원 윤택일 상임대표 등이 참석하며, 참여 단체 대부분은 윤 후보의 지지 단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힘, 이준석 ‘녹취록’ 암초에 내용 가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녹취록 유출 논란이 지난 15일 돌발 암초로 떠올라 대선 경선 토론회를 둘러싼 내용을 더 악화시키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통화 녹취록을 일부 언론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법집을 쏘서 놓은 듯 중일 혼란에 휩싸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제오늘 나라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메시지도 받았다”며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혹을 사실상 전제하고, 이 대표를 ‘불공정과 비상식’이라 우회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참모들도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은 전날 SNS에

서 이 대표를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억울하면 자신의 핸드폰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야권 통합을 저해하는 경망스러운 언행, 야당의 대권 지지율 선두 후보 깎아내리기, 특정 후보에 대한 총성,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만과 독선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성토했다.

논란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유출됐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화가 길지 않아 대부분 내용이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들에게 전달됐고, 구두로 전달된 부분들이 정리돼 문건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